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퇴직태도와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 Local Government Official's Attitude towards Retirement and Preparation for Old Age

가 용 현 (태안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Abstract

Yong hyun Ka

This study considered the preceding research works in order to look into a local government official's attitude towards retirement and preparation for old age, and analyzed as well as considered the general status, difference and (their consequential) influence through the interview survey.

As a result of the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first, it was found that all factors of sub-factors(economic, physical, emotional social preparation for old age) in a local government official's attitude towards retirement, activity after retirement and preparation for old age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Second, with regard to economic preparation for old age, ages, income, attitude towards retirement, and activity after retirement were found to be effective variables, among which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 showed high explanation power. Third, with regard to physical preparation for old age, gender, ages, a city service is offered, income, and activity after retirement were found to be effective variables, among which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 showed high explanation power. Fourth, with regard to emotional preparation for old age, the intention of doing activity after retirement was found to be an effective variable while showing high explanation power. Fifth, with regard to preparation for old age, ages, religion, income and activity after retirement were found to be effective variables, among which the intention of doing activity after retirement showed high explanation power.

Hereupon, this study is intending to make a suggestion as follows: First, it's necessary to improve the restriction on employment system for retired public officials suited for a public official of a local autonomous entity. Particularly,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the need for a structure applicable to the field in line with the characteristic of a local government. Second, what matters is the importance of pre-retirement education. In other words, there is the need for the retirement management program as an education program that meets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s' needs. Thus, there is the need for an education program that can make local government officials realize its importance realistically. Third, it's necessary to do aggressive encouragement to the activity after retirement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This study thinks that it's necessary to arrange the volunteer work system that can be connected while in office or even after retirement

* 이 논문은 저자의 한서대학교 문학 박사학위 논문을 부분 축약 수정한 것임.

by strengthening the strong point that a local government official is in a close relation with a region. Lastly, this study thinks there is the need for a discussion about local government officials from various angles. It is thought that in the midst of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retired public officials in aging society, preparation for old age and retirement could be an alternative to provision for social issues.

주 제 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퇴직태도, 노후준비, 노년

Keywords: Loc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officials, Retirement attitudes, Retirement preparation, Old age

I. 서 론

1. 문제제기

현대사회는 산업화와 과학의 발달 및 복지·의료의 발달로 인구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인구·사회학적인 변화는 일생 주기별 연령층의 다양한 욕구를 표출하게 되었다. 따라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세대에 대한 욕구 및 사회적 문제를 파악해야 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013년도 공무원의 퇴직연금 수급자에 대한 현황을 보면, 51세부터 65세 까지가 83.5%를 차지하고 있으며, 56~60세가 48.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공무원 연금공단, 2014). 재취업 및 취업으로 충분이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라 판단된다. 공무원 퇴직 현황과 퇴직 후 재취업에 대한 제한적인 상황이 일반 퇴직자와는 달라 공무원의 퇴직에 대한 태도와 노후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찾을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퇴직에 대한 태도와 노후준비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그 시사점 찾고자 한다.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퇴직에 대한 태도 및 노후준비에 관한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퇴직에 대한 태도와 노후준비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에 대한 태도 및 노후준비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한 현황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퇴직에 대한 태도 및 퇴직 후 활동에 대하여 알아보고, 노후준비에 대한 경제적 측면, 신체적 측면, 정서적 측면, 사회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고자 한다.

공무원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퇴직에 대한 태도와 노후준비 현황과 실

태를 파악함으로써 앞으로의 과제 및 제언을 그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첫째, 퇴직에 대한 태도 및 퇴직 후 활동과 노후준비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퇴직에 대한 태도와 퇴직 후 활동과 노후준비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기타 변인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넷째, 퇴직관련 태도와 노후준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다섯째,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퇴직에 대한 태도 및 퇴직 후 활동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퇴직에 대한 태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의 퇴직태도 관련 문헌을 알아보면, 김병섭·양재진(2002, 2003)은 공무원의 퇴직관리는 민주화와 시장경제로의 전환 속에서 점차 그 실효성이 상실된다고 하였다. 인식에 대해서는 퇴직연령이 적정하며 다소 상향조정이 좋다고 하였으며, 퇴직 시 준비사항은 경제적인 측면이 높게 나타났다. 재취업 관련 정부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가 높게 나타났다.

지은정·김동배·노인철·이익섭(2003)은 연금의 제도적 수급요건인 재직기간이 가입자의 퇴직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금의 재정적 유인은 수급요건 이후 기여금 납입과 수급기간의 단축에 따른 상실 분을 보상하지 못하고 퇴직유인을 제공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박철민·김대원(2005)은 퇴직에 대한 인식도에서는 퇴직 자체를 인생의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였으며, 여가활동 지향성이 퇴직준비교육 프로그램 필요성 인식 및 프로그램 참가의사에 미치는 경로로 나타났다.

양기근·김상규(2008)은 퇴직관리는 상시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맞춤형 퇴직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였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퇴직 관리체계 모형의 설정과 퇴직관리 대상자 선정의 범위 문제, 퇴직관리 프로그램 등에 대한 연구 및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김윤권·오시영(2013)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를 보다 정교하게 설계함과 동시에 퇴직공직자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국가발전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공무원 직종별 취업 제한제도의 차등화 및 퇴직공무원 취업희망 유형별 퇴직 관리 정책 프로그램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의 공무원 퇴직관련 논문은 퇴직 관리적인 측면의 논문이 많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퇴직관리에 대한 부분이 두드러지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체적인 지원 시스템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착안하여 본 연구는 퇴직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초점에 맞추어 개별적인 접근에서 퇴직에 대한 태도에 관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2. 노후준비

노후준비의 이론적 고찰을 위해 2000년대 이후의 노후준비에 대한 국내 문헌을 고찰 해 보고자 한다.

박창제(2008)는 경제적 노후준비가 전혀 안된 중·고령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고,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비율이 높다고 하였다. 김양이·이채우(2008)는 중년층의 노후준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노후 계획수립의 유무로서 노후 계획수립이 된 사람은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노후준비를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배문조(2009)는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사람일수록 노후 준비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노인에 대한 태도에 따른 노후준비 행동을 보면 노인에 대한 태도의 하위변인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긍정일수록 신체적 준비행동, 정서적 준비행동 및 여가준비행동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최명화·최수일(2012)은 직무만족은 신체적 노후준비와 경제적 노후준비와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직업몰입은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조경진·김순미(2012)는 중년기 가계의 연간 가계 총소득이 많을수록, 생활비 부족 경험이 없는 경우,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연간 가계 저축액이 많을수록, 경제적 독립성을 인지하고, 개인기준의 적정 노후 생활비를 높게 산정할수록, 인적자본 투자를 한 경우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하였다. 강성옥·하규수(2013)은 중년층의 노후준비는 평균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정서적 준비도가 가장 높았고, 가장 준비가 낮은 것은 경제적 노후준비라고 하였다. 강신기·조성숙(2013)은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 소득과 직업경력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는 경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정서적, 신체적 노후준비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고민석·김승희(2013)은 노후준비 행동은 연령이 높을수록, 가정주부/무직의 경우, 가계 월 소득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공무원의 노후준비 연구에 대하여 알아보면, 박현숙·임정도(2012)는 첫째, 노후의 1차적 부양책임은 본인 및 배우자라는 응답이 83.9%였다. 둘째, 노후생활 지역은 대도시 근교의 전원생활이라는 응답이 25.9%였다. 셋째, 노후생활에 예상되는 경제력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매우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33.0%였다. 넷째, 여가활동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서는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이 43.4%였다. 또한, 공무원들의 노후생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노후생활에 대한 경제적 준비 내용에서는 노후 생활의 공적 연금의 충족 정도가 부족하다가 56.0%였다.

석명숙(2014)은 첫째, 일반적 특성별 노후대책 의식 영역 중 신체적 대책은 평균 3.50±0.57점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보인 변수로는 연령, 직급, 근무년수, 학력수준, 종교유무,

결혼상태, 동거형태, 건강상태로 나타났다. 둘째, 정서적 대책 수준은 평균 3.27±0.61점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연령, 직급, 근무년수, 학력수준, 결혼상태, 월 평균급여, 동거형태, 건강상태였으며, 셋째, 경제적 노후대책 수준은 평균 3.15±0.63점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연령, 직급, 근무년수, 학력수준, 종교유무, 결혼상태, 월평균급여, 자녀수, 동거형태였다. 넷째, 주거대책은 평균 3.10±0.42점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보인 변수로는 직급, 근무년수, 종교유무, 결혼상태, 월평균급여, 자녀수, 동거형태, 건강상태로 나타났다. 다섯째, 취업 및 사회활동 참여대책은 평균 2.74±0.65점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보인 변수로는 학력수준, 종교유무, 월평균급여였다. 여섯째, 사후대책은 평균 2.53±0.74점으로 6개 노후대책 영역 중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보인 변수로는 연령, 근무년수, 동거형태였다.

공공기관 공무원의 노후준비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노후준비에 대한 고찰에서와 유사한 경향을 볼 수 있었다.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해 높은 욕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등의 노후준비가 필요함을 알 수가 있었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 방법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접면담과 e-mail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직접면담 조사는 무응답 및 오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115명이 설문에 응하여 주었고, e-mail을 통해서는 무응답 및 오류를 제외한 406명이 설문에 응하여 주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하였다.

2. 측정도구

1) 퇴직에 대한 태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Atchley (1971), 김미혜(1993), 최성재(1989), 박철민·김대원(2005)의 퇴직에 대한 태도를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Atchley (1971), 김미혜(1993)의 공무원자신에 대한 부분과 휴식 및 여가활동에 대한 부분을 참고 재구성하였으며, 기타 항목은 최성재(1989), 박철민·김대원(2005)의 내용을 참고 재구성 하였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퇴직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퇴직은 평소 원하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퇴직은 사회나 내 자신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다.', '퇴직은 휴식과 여가활동을 위한 시간이 될 것이다.', '퇴직을 해도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퇴직 후에도 가능한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이였다. 퇴직 대한 태도에 대한 측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그렇지 않다.」가 2점, 「보통이다.」가 3점, 「그렇다.」가 4점, 「매우 그렇다.」가 5점으로 Likert척도를 사용하였다. 또한 퇴직에 대한 태도의 척도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값이 .91로 나타났다.

2) 퇴직 후 활동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후 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Atchley (1971), 김미혜(1993), 원영희 외(2002)의 퇴직 후 활동을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자원봉사와 여가활동에 대해서는 Atchley (1971), 김미혜(1993), 원영희 외(2002)의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으며, 평생학습은 본 저자가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추가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퇴직 후에 자원봉사를 참여하고 싶다.', '퇴직 후에 여가활동을 참여하고 싶다.', '퇴직 후에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싶다.'였다.

퇴직 후 활동에 대한 측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그렇지 않다.」가 2점, 「보통이다.」가 3점,「그렇다.」가 4점,「매우 그렇다.」가 5점으로 Likert척도를 사용하였다. 또한 퇴직 후 활동의 척도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값이 .81로 나타났다.

3) 노후준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후준비를 측정하기 위해 첫째, 경제적 노후준비, 둘째, 신체적 노후준비, 셋째, 정서적 노후준비, 넷째, 사회적 노후준비로 구분하였다. 경제적 노후준비의 척도에 대해서는 Havighurst(1953), Gross외(1963), 박창제(2008)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신체적 노후준비의 척도에 대해서는 Havighurst (1953), 강유진(2005), 김양이·이채우(2008), 배문조(2009)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설문을 구성하였다. 또한 정서적 노후준비는 Gross외(1963)와 김양이·이채우(2008), 배문조(2009)의 내용을 재구성하였으며, 사회적 노후준비는 Havighurst(1953)와 강유진(2005), 조추용 외(2009)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설문을 구성하였다.

3. 조사대상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표 1〉.

성별을 보면, 여성이 46.4%이고 남성이 53.6%이었다. 연령을 보면 30대가 87명, 40대는 230

명, 50대 이상은 204명이었다.

〈표 1〉 조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521)

구 분		N	%(SD)
성별	여성	242	46.4
	남성	279	53.6
연령	30대 이하	87	16.7
	40대	230	44.1
	50대 이상	204	39.2
학력	고졸	106	20.3
	전문대졸	112	21.5
	대학교졸	240	46.1
	대학원이상	63	12.1
종교	무교	220	42.2
	유교	301	57.8
근무도시	소도시	262	50.3
	중소도시	109	20.9
	대도시	150	28.8
수입	300만원 미만	70	13.4
	300~400만원 미만	223	42.8
	400~500만원 미만	139	26.7
	500만원 이상	89	17.1

종교에 대해서는 무교가 42.2%, 유교가 57.8%로 종교가 있는 사람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이 20.37%, 전문대학 졸이 21.5%로 나타난 반면, 대학교졸은 46.1%, 대학원이상이 12.1%로 대학교졸 이상의 학력이 많았다. 근무도시는 소도시가 262명, 중소도시가 109명, 대도시가 150명으로 소도시에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50%이상을 차지하였다. 수입에 대해서는 300만원 미만이 13.4%, 300만원에서 400만원미만이 42.8%이었다. 400만원에서 500만원미만이 26.7%, 500만원이상이 17.1%를 차지하였다.

4. 분석 방법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퇴직에 대한 태도와 퇴직 후 활동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퇴직에 대한 태도, 퇴직 후 활동과 노후준비의 하위변인 인 경제적 노후준비와 신체적 노후준비, 정서적 노후준비와 사회적 노후준비의 세부영역을 SPSS 22.0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을 하였다.

첫째,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퇴직에 대한 태도 및 태직 후 활동과 노후준비의 하위변인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았다. 둘째, t-Test와 one-way ANOVA(일원변량분석)를 실시하여 인구사회

학적 특성에 따른 퇴직에 대한 태도 및 퇴직 후 활동과 노후준비 하위변인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셋째,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기타변인(퇴직 후 희망하는 직종 및 고용형태, 퇴직 후 자원봉사 희망할 경우의 유형 및 이유, 퇴직 후 여가활동 희망할 경우 유형 및 이유, 퇴직 후 평생학습을 희망할 경우 유형 및 이유, 퇴직 교육에 대한 사전 교육시기, 교육기간 및 필요 프로그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퇴직에 대한 태도 및 퇴직 후 활동과 노후준비 하위변인을 대상으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인구 사회학적 변인과 퇴직에 대한 태도 및 퇴직 후 활동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분석결과

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일반적 경향

1) 평균 퇴직에 대한 태도 및 퇴직 후 활동과 평균 노후준비의 하위요인에 대한 일반적 경향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 퇴직에 대한 태도 및 퇴직 후 활동과 평균 노후준비의 하위요인을 대상으로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경제적 노후준비를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보통이다.' 이상의 3.0 이상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평균퇴직에 대한 태도 및 퇴직 후 활동과 평균노후준비 하위요인의 일반적 경향

(N=521)

내 용	평균	표준편차
퇴직에 대한 태도	3.58	.761
퇴직 후 활동	3.41	.679
경제적 노후준비	2.96	.668
신체적 노후준비	3.05	.681
정서적 노후준비	3.35	.818
사회적 노후준비	3.17	.780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퇴직에 대한 태도가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퇴직 후 활동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후준비 하위요인에서는 정서적 노후준비가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노후준비가 가장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태도 및 퇴직 후 활동, 퇴직교육에서는 보통이상의 평균값을 나타났고 노후준비 하위요인에 대해서 경제적 노후준비를 제외한 신체, 정서, 사회적 노후준비에서도 보통이상의 평균값이

나타났다.

2) 퇴직에 대한 태도의 일반적 경향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에 대한 태도의 일반적 경향은 첫째, '퇴직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평균 3.64(.931), 둘째, '퇴직은 평소 원하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평균 3.61(.879), 셋째, '퇴직은 사회나 내 자신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다.' 평균 3.55(.927), 넷째, '퇴직은 휴식과 여가활동을 위한 시간이 될 것이다.' 평균 3.61(.969), 다섯째, '퇴직을 해도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평균 3.47(.961), 여섯째, '퇴직 후에도 가능한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평균 3.61(.976)이었다〈표 3〉. 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퇴직태도에 대해 '보통이다.'이상을 나타냈으며, '퇴직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가 가장 높은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퇴직을 해도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가 가장 낮은 요인으로 나타났다.

〈표 3〉퇴직에 대한 태도의 일반적 경향

(N=521)

내 용	평균	표준편차
퇴직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3.64	.931
퇴직은 평소 원하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3.61	.879
퇴직은 사회나 내 자신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다.	3.55	.927
퇴직은 휴식과 여가활동을 위한 시간이 될 것이다.	3.61	.969
퇴직을 해도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3.47	.961
퇴직 후에도 가능한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3.61	.976

3) 퇴직 후 활동에 대한 일반적 경향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후 활동의 일반적 경향은 첫째, '퇴직 후에 자원봉사를 참여하고 싶다.' 평균 3.35(1.143), 둘째, '퇴직 후에 여가활동을 참여하고 싶다.' 평균 3.50(.965), 셋째, '퇴직 후에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싶다.' 평균 3.37(1.044) 이었다〈표 4〉.

〈표 4〉 퇴직 후 활동에 대한 일반적 경향

(N=521)

내 용	평균	표준편차
퇴직 후에 자원봉사를 참여하고 싶다.	3.35	1.143
퇴직 후에 여가활동을 참여하고 싶다.	3.50	.965
퇴직 후에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싶다.	3.37	1.044

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퇴직 후 활동에 대해 '보통이다.'이상을 나타냈으며, '퇴직 후에 여가활동을 참여하고 싶다.' 가 가장 높은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퇴직 후에 자원봉사를 참여하고 싶다.'가 가장 낮은 요인으로 나타났다.

4) 노후준비에 대한 일반적 경향

(1)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일반적 경향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제적 노후준비의 일반적 경향은 첫째, '노후를 대비하여 현재 경제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평균 3.26(.947), 둘째, '노후를 위해 가계의 총 자산을 자주 계산 해 본다.' 평균 3.07(1.005), 셋째, '노후를 위해 은행적금/재형저축 등에 가입하고 있다.' 평균 3.24(1.026), 넷째, '노후를 위해 사 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다.' 평균 3.42(.955), 다섯째, '노후를 위해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 평균 2.40(1.188), 여섯째, '노후를 위해 개인연금 상품에 별도로 가입했다.' 평균 3.02(1.205), 일곱째, '노후를 위해 저축, 투자정보를 열심히 수집하고 있다.' 평균 2.70(1.078), 여덟째, '노인 소득보장 정책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평균 2.46(.964), 아홉째, '노후를 위해 노후의 직업을 구상하고 있다.' 평균 3.10(1.167)이었다〈표 5〉. 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해 '그렇지 않다.' 이상을 나타냈으며, '노후를 위해 사 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다.' 가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반면 '노후를 위해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가 가장 낮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표 5〉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일반적 경향

(N=521)

내 용	평균	표준편차
노후를 대비하여 현재 경제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3.26	.947
노후를 위해 가계의 총 자산을 자주 계산 해 본다.	3.07	1.005
노후를 위해 은행적금/재형저축 등에 가입하고 있다.	3.24	1.026
노후를 위해 사 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다.	3.42	.955
노후를 위해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	2.40	1.188
노후를 위해 개인연금 상품에 별도로 가입했다.	3.02	1.205
노후를 위해 저축, 투자정보를 열심히 수집하고 있다.	2.70	1.078
노인 소득보장 정책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2.46	.964
노후를 위해 노후의 직업을 구상하고 있다.	3.10	1.167

(2) 신체적 노후준비에 대한 일반적 경향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체적 노후준비의 일반적 경향은 첫째, '노후를 대비하여 현재 신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평균 2.90(.965), 둘째, '노후를 위해 건강관리에 특별히 신경

쓰고 있다.' 평균 2.98(.926), 셋째, '노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음식물 섭취를 조절한다.' 평균 2.94(.964), 넷째, '노후의 건강생활을 위해 음주, 흡연은 가급적 피한다.' 평균 3.04(1.122), 다섯째, '정기적으로(필요할 때마다) 건강진단을 받는다.' 평균 3.53(.903), 여섯째, '건강생활을 위해 규칙적인 운동으로 몸을 단련한다.' 평균 2.91(.995), 일곱째, '규칙적인 생활로 무리하지 않는다.' 평균 3.01(.928), 여덟째, '노후를 대비하여 체중관리를 위해 힘쓴다.' 평균 3.06(.996), 아홉째, '피곤하면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휴식을 취한다.' 평균 3.02(.947) 이었다〈표 6〉. 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신체적 노후준비에 대해 '그렇지 않다.' 이상을 나타냈으며, '정기적으로(필요할 때마다) 건강진단을 받는다.' 가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으며, 반면 '노후를 대비하여 현재 신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가장 낮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표 6〉 신체적 노후준비에 대한 일반적 경향

(N=521)

내 용	평균	표준편차
노후를 대비하여 현재 신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2.90	.965
노후를 위해 건강관리에 특별히 신경 쓰고 있다.	2.98	.926
노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음식물 섭취를 조절한다.	2.94	.964
노후의 건강생활을 위해 음주, 흡연은 가급적 피한다.	3.04	1.122
정기적으로(필요할 때마다) 건강진단을 받는다.	3.53	.903
건강생활을 위해 규칙적인 운동으로 몸을 단련한다.	2.91	.995
규칙적인 생활로 무리하지 않는다.	3.01	.928
노후를 대비하여 체중관리를 위해 힘쓴다.	3.06	.996
피곤하면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휴식을 취한다.	3.02	.947

(3) 정서적 노후준비에 대한 일반적 경향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서적 노후준비의 일반적 경향은 첫째, '노후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현재 정서적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평균 3.25(.890), 둘째, '노후에 편안한 부부관계를 위해 배우자와 더불어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한다.' 평균 3.28(1.305), 셋째, '노후에 자녀와 원만한 가족관계를 위해 자녀와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한다.' 평균 3.66(1.675), 넷째, '노후에 정서적으로 평안한 삶을 위해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한다.'는 평균 3.19(.884) 이었다〈표 7〉.

〈표 7〉 정서적 노후준비에 대한 일반적 경향

(N=521)

내 용	평균	표준편차
노후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현재 정서적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있다.	3.25	.890
노후에 편안한 부부관계를 위해 배우자와 더불어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한다.	3.28	1.305
노후에 자녀와 원만한 가족관계를 위해 자녀와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한다.	3.66	1.675
노후에 정서적으로 평안한 삶을 위해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한다.	3.19	.884

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정서적 노후준비에 대해 '보통이다.' 이상을 나타냈으며, '노후에 자녀와 원만한 가족관계를 위해 자녀와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한다.' 가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반면 '노후에 정서적으로 평안한 삶을 위해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한다.'가 가장 낮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4) 사회적 노후준비에 대한 일반적 경향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적 노후준비의 일반적 경향은 첫째, '노후에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평균 3.16(.944), 둘째, '노후를 위해 친구들과의 모임에 늘 참여하고 있다.' 평균 3.34(.929), 셋째, '노후의 봉사활동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평균 2.84(1.046), 넷째, '노후의 취미활동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평균 3.34(1.029) 이었다〈표 8〉. 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사회적 노후준비에 대해 '그렇지 않다.' 이상을 나타냈으며, '노후를 위해 친구들과의 모임에 늘 참여하고 있다.'와 '노후의 취미활동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가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난 반면 '노후의 봉사활동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가 가장 낮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표 8〉 사회적 노후준비에 대한 일반적 경향

(N=521)

내 용	평균	표준편차
노후에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3.16	.944
노후를 위해 친구들과의 모임에 늘 참여하고 있다.	3.34	.929
노후의 봉사활동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2.84	1.046
노후의 취미활동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3.34	1.029

2.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퇴직에 대한 태도 및 퇴직 후 활동과 노후준비의 하위요인

1)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퇴직태도

t-Test와 one-way ANOVA(일원변량분석, 사후검정 : Duncan)를 사용하여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퇴직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근무도시, 수입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성별에서 여성이 평균 3.64, 남성이 평균 3.53으로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근무도시는 소도시가 평균 3.50, 대도시가 평균 3.58인 반면 중소도시가 평균 3.80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입에서는 300만원 미만이 평균 3.40, 3~400만원미만이 평균 3.55인 반면 4~500만원 미만이 평균 3.62, 500만원이상이 평균 3.75로 높게 나타났다. 즉,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퇴직태도의 차이에서는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무도시에서는 중소도시가 높게 나타났다. 소득에서는 4~500만원 미만과 500만원 이상이 높게 나타났다〈표 9〉.

〈표 9〉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퇴직에 대한 태도의 차이

(N=521)

퇴직에 대한 태도		N	M	SD	t값/F	Duncan
성별	여성	242	3.64	.768	1.755*	
	남성	279	3.52	.753		
연령	30대 이하	87	3.53	.737	.274	N.S
	40대	230	3.59	.731		
	50대 이상	204	3.59	.806		
학력	고졸	106	3.55	.775	1.489	N.S
	전문대졸	112	3.58	.759		
	대학교졸	240	3.55	.764		
	대학원이상	63	3.77	.719		
종교	무교	220	3.60	.681	.386	
	유교	301	3.57	.816		
근무도시	소도시	262	3.50	.756	6.121***	a
	중소도시	109	3.80	.704		b
	대도시	150	3.58	.784		a
수입	300만원 미만	70	3.40	.896	3.076*	a
	3~400만원미만	223	3.55	.777		ab
	4~500만원미만	139	3.62	.731		b
	500만원 이상	89	3.75	.613		b

*p〈.05, **p〈.01, ***p〈.001

2)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퇴직 후 활동

t-Test와 one-way ANOVA(일원변량분석, 사후검정 : Duncan)를 사용하여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퇴직 후 활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 근무도시, 수입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연령에서 30대 이하가 평균 3.31, 40대는 평균 3.33인 반면 50대 이상은 평균 3.53으로 50대 이상이 30대 이하와 40대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근무도시에서는 소도시가 평균 3.35, 대도시가 평균 3.43인 반면 중소도시가 평균 3.53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입에서는 300만원 미만이 평균 3.12인 반면, 4~500만원 미만이 평균 3.35, 3~400만원미만이 평균 3.49, 500만원이상이 평균 3.50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퇴직 후 활동의 차이에서 연령 50대 이상이 높게 나타났으며, 근무도시에서는 중소도시가 높게 나타났다. 수입에서는 4~500만원 미만, 3~400만원미만, 500만원이상이 높게 나타났다〈표 10〉.

〈표 10〉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퇴직 후 활동의 차이

(N=521)

퇴직 후 활동		N	M	SD	t값/F	Duncan
성별	여성	242	3.40	.679	-.319	
	남성	279	3.42	.681		
연령	30대 이하	87	3.31	.593	5.756**	a
	40대	230	3.33	.646		a
	50대 이상	204	3.53	.732		b
학력	고졸	106	3.43	.803	.705	N.S
	전문대졸	112	3.42	.585		
	대학교졸	240	3.36	.680		
	대학원이상	63	3.50	.604		
종교	무교	220	3.38	.625	-.764	
	유교	301	3.43	.717		
근무 도시	소도시	262	3.35	.692	3.607*	a
	중소도시	109	3.53	.617		b
	대도시	150	3.41	.679		ab
수입	300만원 미만	70	3.12	.711	6.275***	a
	3~400만원미만	223	3.49	.651		b
	4~500만원미만	139	3.35	.723		b
	500만원 이상	89	3.50	.586		b

*p〈.05, **p〈.01, ***p〈.001

3)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노후준비

(1)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경제적 노후준비

t-Test와 one-way ANOVA(일원변량분석, 사후검정 : Duncan)를 사용하여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경제적 노후준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 종교, 수입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연령에서 30대 이하가 평균 2.78, 40대는 평균 2.93인 반면 50대 이상은 평균 3.07으로 50대 이상이 30대 이하와 40대 보다 높게 나타났다. 종교에서 무교가 평균 2.89, 유교가 평균 3.02로 유교가 높게 나타났다. 수입에서는 300만원 미만이 평균 2.59, 3~400만원 미만이 평균 2.95, 4~500만원 미만이 평균 2.99인 반면, 500만원이상이 평균 3.25로 높게 나타났다〈표 11〉.

즉,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경제적 노후준비의 차이에서 연령 50대 이상이 높게 나타났으며, 종교에서는 종교를 갖고 있는 공무원이 높게 나타났다. 수입에서는 500만원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1〉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경제적 노후준비의 차이

(N=521)

경제적 노후준비		N	M	SD	t값/F	Duncan
성별	여성	242	2.99	.703	.745	
	남성	279	2.94	.637		
연령	30대 이하	87	2.78	.713	6.337**	a
	40대	230	2.93	.646		ab
	50대 이상	204	3.07	.657		b
학력	고졸	106	2.88	.676	1.579	N.S
	전문대졸	112	3.06	.643		
	대학교졸	240	2.97	.697		
	대학원이상	63	2.89	.569		
종교	무교	220	2.89	.645	-2.042*	
	유교	301	3.02	.681		
근무도시	소도시	262	2.91	.686	1.844	
	중소도시	109	3.02	.677		
	대도시	150	3.02	.625		
수입	300만원 미만	70	2.59	.687	13.887***	a
	3~400만원미만	223	2.95	.625		b
	4~500만원미만	139	2.99	.629		b
	500만원 이상	89	3.25	.684		c

*p〈.05, **p〈.01, ***p〈.001

(2)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신체적 노후준비

t-Test와 one-way ANOVA(일원변량분석, 사후검정 : Duncan)를 사용하여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신체적 노후준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종교, 근무도시, 수입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성별에서 여성이 평균 3.10, 남성이 평균 3.00으로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서 30대 이하가 평균 2.70, 40대는 평균 3.06인 반면 50대 이상은 평균 3.18으로 50대 이상과 40대가 30대 이하 보다 높게 나타났다. 종교에서 무교가 평균 2.98, 유교가 평균 3.09로 유교가 높게 나타났다. 근무도시에서는 소도시가 평균 3.00, 대도시가 평균 3.01인 반면 중소도시가 평균 3.20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입에서는 300만원 미만이 평균 2.75, 4~500만원 미만이 평균 2.99, 3~400만원미만이 평균 3.07인 반면, 500만원이상이 평균 3.31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12〉.

즉,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신체적 노후준비의 차이분석에서 여성이 높게 나왔으며, 연령은 50대 이상과 40대가 높게 나타났다. 종교에서는 종교를 갖고 있는 공무원이 높게 나타났다. 근무도시에서는 중소도시가 높게 나타났으며, 수입에서는 500만원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2〉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신체적 노후준비의 차이

(N=521)

신체적 노후준비		N	M	SD	t값/F	Duncan
성별	여성	242	3.10	.720	1.751*	
	남성	279	3.00	.643		
연령	30대 이하	87	2.70	.663	15.970***	a
	40대	230	3.06	.673		b
	50대 이상	204	3.18	.649		b
학력	고졸	106	3.05	.689	2.057	N.S
	전문대졸	112	2.98	.704		
	대학교졸	240	3.02	.674		
	대학원이상	63	3.23	.635		
종교	무교	220	2.98	.644	-1.765*	
	유교	301	3.09	.705		
근무 도시	소도시	262	3.01	.691	3.652*	a
	중소도시	109	3.20	.680		b
	대도시	150	3.00	.651		a
수입	300만원 미만	70	2.75	.816	9.672***	a
	3~400만원미만	223	3.07	.681		b
	4~500만원미만	139	2.99	.585		b
	500만원 이상	89	3.31	.606		c

*p〈.05, **p〈.01, ***p〈.001

(3)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정서적 노후준비

t-Test와 one-way ANOVA(일원변량분석, 사후검정 : Duncan)를 사용하여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정서적 노후준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 학력, 수입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연령에서 30대 이하가 평균 3.47, 50대가 평균 3.47인 반면 40대는 평균 3.19로 30대 이하와 50대가 40대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서 고졸이 평균 3.27, 전문대졸이 평균 3.17, 대학교졸이 평균 3.41인 반면 대학원이상이 평균 3.55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입에서는 4~500만원 미만이 평균 3.17, 3~400만원미만이 평균 3.32, 500만원이상이 평균 3.53인 반면, 300만원 미만이 평균 3.56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13〉.

즉,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정서적 노후준비의 차이분석에서 연령은 30대 이하와 50대 이상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에서는 대학원이상이 높게 나타났다. 수입에서는 300만원미만과 500만원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3〉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정서적 노후준비의 차이

(N=521)

정서적 노후준비		N	M	SD	t값/F	Duncan
성별	여성	242	3.37	.869	.579	
	남성	279	3.33	.771		
연령	30대	87	3.47	1.086	7.833***	b
	40대	230	3.19	.668		a
	50대 이상	204	3.47	.813		b
학력	고졸	106	3.27	.693	3.671**	a
	전문대졸	112	3.18	.728		a
	대학교졸	240	3.41	.925		ab
	대학원이상	63	3.55	.658		b
종교	무교	220	3.38	.821	.894	
	유교	301	3.32	.816		
근무도시	소도시	262	3.33	.823	.696	
	중소도시	109	3.42	.867		
	대도시	150	3.31	.773		
수입	300만원 미만	70	3.56	1.121	5.411***	c
	3~400만원미만	223	3.32	.733		ab
	4~500만원미만	139	3.17	.734		a
	500만원 이상	89	3.53	.805		bc

*p〈.05, **p〈.01, ***p〈.001

(4)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사회적 노후준비

t-Test와 one-way ANOVA(일원변량분석, 사후검정 : Duncan)를 사용하여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사회적 노후준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 종교, 근무지역, 수입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연령에서 30대 이하가 평균 2.85, 40대가 평균 3.08, 50대 이상이 평균 3.39로 50대 이상, 40대 30대 이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종교에서 무교가 평균 3.05, 유교가 평균 3.26으로 유교가 높게 나타났다. 근무지역에서는 소도시가 평균 3.09, 대도시가 평균 3.21인 반면 중소도시가 평균 3.31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입에서는 300만원 미만이 평균 2.73인 반면, 4~500만원 미만이 평균 3.16, 3~400만원미만이 평균 3.25, 500만원이상이 평균 3.33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14〉.

즉,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사회적 노후준비의 차이분석에서 연령은 50대 이상, 40대, 30대 이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종교에서는 종교를 갖고 있는 공무원이 높게 나타났다. 근무도시에서는 중소도시가 높게 나타났으며, 수입에서는 4~500만원 미만, 3~400만원미만, 500만원이상이 높게 나타났다.

〈표 14〉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사회적 노후준비의 차이

(N=521)

사회적 노후준비		N	M	SD	t값/F	Duncan
성별	여성	242	3.14	.856	-.867	
	남성	279	3.20	.744		
연령	30대 이하	87	2.85	.754	17.813***	a
	40대	230	3.08	.741		b
	50대 이상	204	3.39	.815		c
학력	고졸	106	3.19	.944	1.405	N.S
	전문대졸	112	3.19	.728		
	대학교졸	240	3.11	.776		
	대학원이상	63	3.33	.715		
종교	무교	220	3.05	.754	-3.015***	
	유교	301	3.26	.818		
근무도시	소도시	262	3.09	.758	3.222*	a
	중소도시	109	3.31	.783		b
	대도시	150	3.21	.862		ab
수입	300만원 미만	70	2.73	.755	9.346***	a
	3~400만원미만	223	3.25	.747		b
	4~500만원미만	139	3.16	.823		b
	500만원 이상	89	3.33	.806		b

*p〈.05, **p〈.01, ***p〈.001

3.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퇴직관련 기타 요인

교차분석 및 t-Test와 one-way ANOVA(일원변량분석, 사후검정 : Duncan)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기타요인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인구 사회학적 변인은 성별, 연령, 학력, 종교, 근무도시,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기타요인은 퇴직 후 희망하는 직종 및 고용형태, 퇴직 후 자원봉사 희망할 경우의 유형 및 이유, 퇴직 후 여가활동 희망할 경우 유형 및 이유, 퇴직 후 평생학습을 희망할 경우 유형 및 이유, 퇴직 교육에 대한 사전 교육시기, 교육기간 및 필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는 유의미한 결과만 기술 하도록 하겠다.

1) 성별에 따른 퇴직 후 평생학습을 희망하는 이유의 차이는 여성과 남성 모두 건강을 위해서의 이유가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차 순위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2) 연령에 따른 퇴직 후 희망직종의 차이는 30대 이하는 근소한 차이로 사무직이 높게 나타난 반면, 40대는 기타가 높게 나타난 반면 50대 이상의 경우 사무직, 자영업이 높게 나타났다.

3) 연령에 따른 퇴직 후 평생학습을 희망하는 이유의 차이는 건강을 위해서의 이유가 높게

나타났으며, 차순으로는 40대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및 정서적 안정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면 50대는 생활의 활력이 높게 나타났다.

4) 연령에 따른 희망하는 퇴직 교육기간의 차이는 30대 이하, 50대 이상, 40대 순으로 길게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연령에 따른 필요한 퇴직 프로그램의 차이는 모든 연령에서 재취업이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40대에서는 생활적응이 가장 높은 요인으로 나타났다.

6) 학력에 따른 퇴직 후 희망직종의 차이는 고졸과 전문대졸, 대학교졸은 기타직종을 선호하였으며, 대학교졸과 대학원졸은 자영업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문대졸과 대학교졸은 사무직도 높게 나타났다.

7) 학력에 따른 퇴직 후 평생학습 유형의 차이는 학력에 따른 퇴직 후 평생학습 유형의 차이는 고졸과 전문대졸, 대학교졸에서는 건강교육에 대한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원이상에서는 교양시사 및 노인복지, 외국어 교육에서 높게 나타났다.

8) 학력에 따른 퇴직 후 평생학습을 희망하는 이유의 차이는 고졸, 전문대졸 및 대학교졸에서는 건강을 위해서의 이유가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원이상에서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9) 학력에 따른 희망하는 퇴직 교육시기의 차이는 고졸, 대학교졸, 대학원이상, 전문대졸 순으로 빨리 교육이 시작되기를 희망하였다.

10) 학력에 따른 희망하는 퇴직 교육기간의 차이는 고졸, 대학원이상, 대학교졸보다 전문대졸이 긴 시간을 받기를 희망하였다.

11) 종교의 유무에 따른 희망하는 퇴직 교육기간의 차이는 종교가 있는 경우가 긴 시간을 교육 받기를 희망하였다.

12) 근무도시에 따른 희망하는 퇴직 교육시기의 차이는 소도시가 중소도시, 대도시에 비해 빠르게 시작하기를 희망하였다.

13) 근무도시에 따른 희망하는 퇴직 교육기간의 차이는 대도시가 중소도시, 소도시 보다 긴 시간을 받기를 희망하였다.

14) 수입에 따른 희망하는 퇴직 교육시기의 차이는 300만원 미만이 500만원 이상, 400~5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보다 빨리 교육이 시작되기를 희망하였다.

15) 수입에 따른 희망하는 퇴직 교육기간의 차이는 400~500만원 미만이 300~4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보다 긴 시간을 받기를 희망하였다.

4. 퇴직에 대한 태도 및 퇴직 후 활동과 노후준비의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퇴직에 대한 태도 및 퇴직 후 활동과 노후준비의 하위요인(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노후준비)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표15〉. 구체적으로는 살펴보

면 첫째, 퇴직태도, 퇴직 후 활동, 퇴직 교육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둘째, 노후준비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하위변인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셋째, 퇴직태도, 퇴직 후 활동, 퇴직 교육 과 노후준비 하위변인 간의 모든 변인에서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퇴직에 대한 태도 및 퇴직 후 활동과 노후준비 하위변인(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노후준비)의 모든 요인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표 15〉 퇴직에 대한 태도 및 퇴직 후 활동과 노후준비의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

(N=521)

	퇴직태도	퇴직후활동	경제준비	신체준비	정서준비
퇴직후활동	.400***				
경제준비	.175***	.310***			
신체준비	.307***	.349***	.375***		
정서준비	.291***	.356***	.263***	.457***	
사회준비	.252***	.639***	.419***	.386***	.355***

*p〈.05, **p〈.01, ***p〈.001

5. 인구 사회학적 변인과 퇴직에 대한 태도 및 퇴직 후 활동이 노후준비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

1) 인구 사회학적 변인과 퇴직에 대한 태도 및 퇴직 후 활동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앞서 분석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은 인구 사회학적 변인 등의 특성 변인을 위계적 회귀분석에 투입하였다〈표 16〉. 위계적 회귀분석의 경제적 노후준비의 영향요인은 앞선 평균차이분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인구 사회학적 변인 중 성별, 연령, 종교, 근무도시, 수입과 퇴직에 대한 태도 및 퇴직 후 활동을 투입하였다. 변인 간의 독립성을 알아보는 Durbin-Watson값은 1.875으로 그 독립성을 입증하였다.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해서 1단계에서는 인구 사회학적 특성변인인 연령과 수입에서 7.7%를 설명하였다. 2단에서 포함된 퇴직태도는 경제적 노후준비를 2.1%를 증가 시켰다. 3단계에서 포함된 퇴직 후 활동은 5.8%를 증가 시켰다. 또한, 전체 7개의 변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15.6% 설명하였다. 통제변수를 제외하고, 모든 변수가 포함된 3단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인구 사회학적 변인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다. 즉, 인구 사회학적 변인의 요인이 높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 또한 높게 나타났다.

〈표 16〉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N=521)

구분	B(β)	B(β)	B(β)
Step1			
성별(남=1)	-.029(-.021)	-.015(-.011)	-.028(-.021)
연령	.107(.114)**	.104(.111)**	.075(.080)*
종교(유=1)	.044(.032)	.052(.039)	.048(.036)
근무도시	-.004(-.002)	.002(.002)	-.022(-.016)
수입	.162(.225)***	.148(.206)***	.147(.203)***
Step2			
퇴직 태도		.128(.145)***	.035(.040)
Step3			
퇴직 후 활동			.261(.265)***
R^2 변화량	.077	.021	.058
F	8.647***	9.315***	13.498***
R^2	.077	.098	.156

*p〈.05, **p〈.01, ***p〈.001

2) 인구 사회학적 변인과 퇴직에 대한 태도 및 퇴직 후 활동이 신체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신체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앞서 분석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갖은 인구 사회학적 변인 등의 특성 변인을 위계적 회귀분석에 투입하였다〈표 17〉. 위계적 회귀분석의 신체적 노후준비의 영향요인은 앞선 평균차이 분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인구 사회학적 변인 중 성별, 연령, 종교, 근무도시, 수입과 퇴직에 대한 태도 및 퇴직 후 활동을 투입하였다. 변인 간의 독립성을 알아보는 Durbin-Watson값은 1.759으로 그 독립성을 입증하였다.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신체적 노후준비에 대해서 1단계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변인인 성별과 연령, 근무도시와 수입에서 8.7%를 설명하였다. 2단계에서 포함된 퇴직태도는 신체적 노후준비를 3.5%를 증가 시켰다. 3단계에서 포함된 퇴직 후 활동은 5.0%를 증가 시켰다. 또한 전체 7개의 변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신체적 노후준비를 17.2% 설명하였다. 통제변수를 제외하고, 모든 변수가 포함된 3단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다. 즉,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높을수록 신체적 노후준비 또한 높게 나타났다.

〈표 17〉 신체적 노후준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N=521)

구분	B(β)	B(β)	B(β)
Step1			
성별(남=1)	-.120(-.088)*	-.092(-.067)	-.104(-.076)*
연령	.202(.211)***	.197(.206)***	.169(.177)***
종교(유=1)	.023(.017)	.040(.029)	.037(.027)
근무도시	-.121(-.082)*	-.110(-.075)*	-.133(-.091)*
수입	.110(.149)***	.082(.112)**	.081(.110)**
Step2			
퇴직태도		.253(.282)***	.164(.183)***
Step3			
퇴직 후 활동			.249(.248)***
R^2 변화량	.087	.035	.050
F	9.756***	10.996***	14.196***
R^2	.087	.122	.172

*p〈.05, **p〈.01, ***p〈.001

3) 인구 사회학적 변인과 퇴직에 대한 태도 및 퇴직 후 활동이 정서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정서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앞서 분석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갖은 인구사회학적 변인 등의 특성 변인을 위계적 회귀분석에 투입하였다〈표 18〉. 위계적 회귀분석의 정서적 노후준비의 영향요인은 앞선 평균차이분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인구 사회학적 변인 중 성별, 연령, 종교, 근무도시, 수입과 퇴직에 대한 태도 및 퇴직 후 활동을 투입하였다. 변인 간의 독립성을 알아보는 Durbin-Watson값은 1.863으로 그 독립성을 입증하였다.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정서적 노후준비에 대해서 1단계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변인에서는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지 못했다. 2단에서 포함된 퇴직태도는 정서적 노후준비를 6.9%를 증가 시켰다. 3단계에서 포함된 퇴직 후 활동은 8.6%를 증가 시켰다. 또한 전체 7개의 변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신체적 노후준비를 16.1% 설명하였다. 통제변수를 제외하고, 모든 변수가 포함된 3단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퇴직 후 활동의 특성변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퇴직 후 활동 의향이 높을수록 정서적 노후 준비도가 높아졌다.

〈표 18〉 정서적 노후준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N=521)

구분	B(β)	B(β)	B(β)
Step1			
성별(남=1)	-.065(-.040)	-.030(-.018)	-.047(-.029)
연령	.072(.062)	.065(.057)	.027(.023)
종교(유=1)	-.082(-.050)	-.061(-.037)	-.066(-.040)
근무도시	-.020(-.011)	-.006(-.003)	-.039(-.022)
수입	-.021(-.024)	-.056(-.063)	-.058(-.066)
Step2			
퇴직태도		.318(.296)***	.194(.180)***
Step3			
퇴직 후 활동			.349(.290)***
R^2 변화량	.006	.069	.086
F	0.654	6.028***	14.039***
R^2	.006	.075	.161

*p〈.05, **p〈.01, ***p〈.001

4) 인구 사회학적 변인과 퇴직에 대한 태도 및 퇴직 후 활동이 사회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사회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앞서 분석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갖은 인구 사회학적 변인 등의 특성 변인을 위계적 회귀분석에 투입하였다〈표 19〉. 위계적 회귀분석의 사회적 노후준비의 영향요인은 앞선 평균차이분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인구 사회학적 변인 중 성별, 연령, 종교, 근무도시, 수입과 퇴직에 대한 태도 및 퇴직 후 활동을 투입하였다. 변인 간의 독립성을 알아보는 Durbin-Watson값은 1.836으로 그 독립성을 입증하였다.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사회적 노후준비에 대해서 1단계에서는 인구 사회학적 특성변인인 연령, 종교, 수입에서 8.3%를 설명하였다. 2단에서 포함된 퇴직의식은 사회적 노후준비를 5.8%를 증가 시켰다. 3단계에서 포함된 퇴직 후 활동은 30.6%를 증가 시켰다. 또한 전체 7개의 변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사회적 노후준비를 44.7% 설명하였다. 통제변수를 제외하고, 모든 변수가 포함된 3단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퇴직 후 활동의 특성변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퇴직 후 활동 의향이 높을수록 사회적 노후준비도가 높아졌다.

〈표 19〉 사회적 노후준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N=521)

구분	B(β)	B(β)	B(β)
Step1			
성별(남=1)	.051(.032)	.079(.049)	.043(.027)
연령	.242(.216)***	.237(.212)***	.158(.141)***
종교(유=1)	.119(.074)*	.135(.084)*	.125(.077)*
근무도시	.040(.023)	.052(.030)	-.016(-.009)
수입	.090(.105)*	.063(.073)	.058(.067)*
Step2			
퇴직태도		.255(.243)***	-.001(-.001)
Step3			
퇴직 후 활동			.719(.612)***
R^2 변화량	.083	.058	.306
F	9.307***	14.013***	59.287***
R^2	.083	.141	.447

*p〈.05, **p〈.01, ***p〈.001

V. 제언과 연구의 제한점

1. 제언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퇴직에 대한 태도와 노후준비에 대해 알아보았다. 선행연구의 고찰에서는 경찰 및 소방공무원, 군인에 대한 연구를 시행되어 왔지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현실이다. 여러 직종의 공무원과의 유사성이 존재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만의 결과와 그 시사점을 찾고자 함에 목적이었다. 이에 본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적합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공직자 윤리법’의 강화의 추세에서 비리 및 불법행위에 대한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에 대한 강제적인 측면의 법률적 제약이 필요하지만, 공무원들의 자조적인 능력 및 창의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행동강령, 규약 등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구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퇴직교육에 대한 중요성이다. 공무원이 정년퇴직 후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연장선상의 업무 또한 재취업과 재고용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퇴직태도의 결과처럼 ‘퇴직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퇴직을 해도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가 가장 낮게 나온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욕구에 맞는 교육프

로그램 퇴직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현실적으로 실감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퇴직 후 활동에 대한 적극적 독려가 필요하다. 본 조사연구결과 정서적, 사회적 노후준비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퇴직 후 활동에 대한 의향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평생교육의 부분은 다른 부분에 비해 높게 나왔다고 사료된다. 평생교육, 여가활동에 비해 자원봉사 부분이 다소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지역의 어려움과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지역에서의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퇴직 전에 자원봉사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노후준비에 대해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조사 결과 노후준비의 하위변인 중 경제적·신체적 노후준비에서는 인구 사회학적변인, 정서적·사회적 노후준비에 대해서는 퇴직 후 활동의향에 대해 나타났다. 이는 공무원의 노후준비의 필요성은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에서 강조되지만, 그 세부적인 퇴직 후 활동, 성별, 연령, 지역의 규모, 수입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의 퇴직 공무원의 증가 속에서 노후준비 및 퇴직에 관련된 준비는 사회적인 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된다고 고려된다.

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퇴직에 대한 태도와 노후준비에 관한 선행연구와 조사연구를 통해 실태와 제언을 하였다. 그러나 기초적인 자료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하였기에 본 연구의 한계점도 나타나고 있다. 첫째, 조사 연구를 통한 이 자료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결과라고 예측일 뿐 전체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둘째, 조사연구의 변인에 있어서 다양하고, 폭 넓은 조사의 한계점을 갖고 있다. 선행연구를 통한 다소 축약된 설문면접 조사이기에 그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폭 넓은 선행연구, 외국문헌 등의 고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퇴직 및 노후준비의 연구는 차기 연구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참고문헌

강성옥·하규수. (2013). 중년층의 성공적 노화인식과 노후준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1(12): 121∼144.

강신기·조성숙. (2013). 중년층의 재무교육 및 퇴직태도가 노후준비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1(11): 117∼132.

강유진. (2005). 한국 성인세대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지」, 16(4): 159∼174.

고민석·김승희. (2013). 성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건강관련 노후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보건연구」, 39(2): 63∼75.

김미혜. (1993). 퇴직에 대한 태도와 개념화에 기초한 퇴직준비교육의 개발. 「한국사회복지학」, 22: 13∼37

김병섭·양재진. (2002). 공무원의 퇴직관리 : 실태와 정책적 이슈. 「행정논총」, 40(1): 1∼22.

김병섭·양재진. (2003). 퇴직공무원의 퇴직관리에 관한 인식분석. 「행정논총」, 41(2): 31∼51.

김양이·이채우. (2008). 중년층의 노후준비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 사회복지조사연구」, 19: 55∼82.

김윤권· 오시영. (2013). 적극적인 공무원 퇴직 관리를 위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2(1): 219∼244.

박창제. (2008). 중·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60(3): 275∼297.

박철민. (2010). 퇴직공무원의 자원봉사활동 실태와 만족도 인과구조분석. 「지방정부연구」, 14(3): 23∼49.

박철민·김대원. (2005). 지방공무원의 퇴직에 대한 인식과 퇴직준비 교육수요모형 분석. 「한국행정논집」, 17(2): 405∼429.

박현숙·임정도. (2012). 공무원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준비정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2): 248∼260.

배문조. (2009). 중년기 성인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9(3): 1107∼1122.

석명숙. (2014). 「공무원들의 자녀가치관 및 라이프스타일이 성공적 노화와 노후대책 의식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양기근·김상규. (2008). 공무원 퇴직관리체계의 구축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8(12): 255∼274.

이행숙. (1996).「주부의 노후생활 준비의식·행동 및 경제대책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원영희·김동배·이금룡·한정란. (2002).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중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2(2): 131∼146.

조경진·김순미. (2012). 중년기 가계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인적자본 투자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4): 131∼152.

조추용·송미영·이근선. (2009). 중년층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연구」, 43: 136~156.

지은정·김동배·노인철·이익섭. (2003). 공무원연금이 가입자의 퇴직결정에 미치는 요인분석. 「사회보장연구」, 19(2): 1~33.

최명화·최수일. (2012). 근로자의 개인적·직업적 특성과 노후준비와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8(12): 255~274.

최성재. (1989). 퇴직예정자의 퇴직에 대한 태도 및 퇴직 후 생활전망의 인식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1: 47~65.

접수일(2015년 09월 21일)
수정일(2015년 11월 17일)
게재확정일(2015년 12월 15일)